

어려웠던만큼 보람컸던 大津港건설

接敵地域 특수성으로 工事外的인 制約 많아

朴 明 雄 <相互産業株式會社 常務理事>



이곳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대한민국 행진권에 들게 된 특이한 이력을 지닌 어항이기도 하다.

대진항은 서울에서 236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해발 742m의 큰 까치봉과 711m의 작은 까치봉, 그리고 910m의 건봉산이 들어서 있어 이곳에서 동쪽 해안선까지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대진항의 해안선은 단순하고, 만곡이 적어 어항으로서 아주 적격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일대가 어로한계선을 지적해 둔 황금어장인 탓으로 기능과 효율도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最北端의 第1種港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 자리잡고 있는 대진항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수산청 제1종 어항이다.

6·25전만 해도 북한에 속했던

이곳에서 주로 어획되는 어종은 명태, 정어리, 넙치, 문어 등 다양한 편이며, 어획량 역시 동해안의 다른 어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인 연간 1,800여 톤으로 어획고는 3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겨울철 명태잡이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대진항 개발의 역사는 비교적 오랜 편이다. 일제시대부터 이미 동해안의 주요 어항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방파제 23m와 남방파제 124m 등 모두 147m의 방파제가 일제시대에 건설되었고, 그 이후 별다른 개발없이 그냥 그대로 이용되어 왔다.

다만 항내의 부분적인 준설과 암반제거공사가 몇차례 시행되다가 1968년 물양장 54.5m 축조를 시작으로 몇해에 걸쳐 312m가 축조되었을 뿐이다.

대진항의 개발이 뒤늦은 극명한 예로는 1971년 12월 1일야야 비로소 수산청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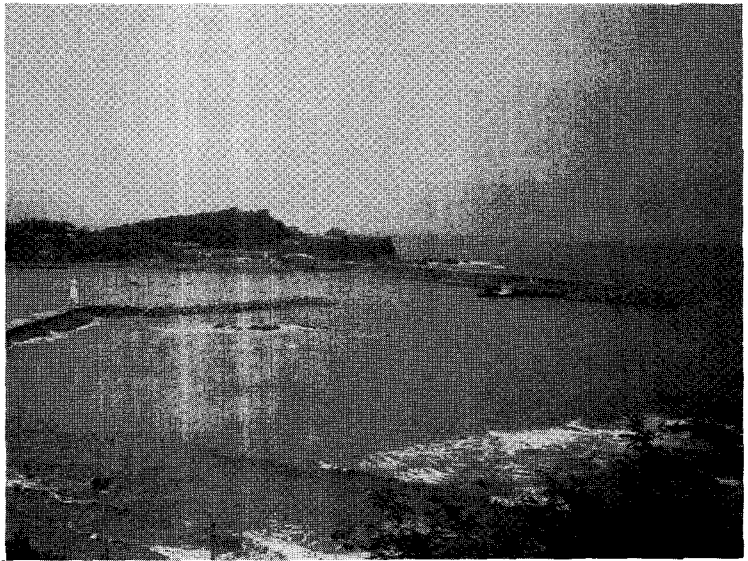
게다가 본격적인 개발은 또 어항 지정후 15년이 지난 1987년 12월야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실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의 공사개요는 진입도로 387m와 물양장 175m, 암반제거 2만 2,811㎡이며, 올 12월까지는 외곽시설인 북방파제 270m와 남방파제 90m가 완공돼 비교적 제대로 된 기능과 시설을 갖춘 번듯한 어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工事外的인 制約곤혹

어느 어항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선 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특히 대진항은 공사 자체도 자체려니와 공사의외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특히 많은 애로를 겪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장비와



자재의 문제였다.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점적 지역이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좁고 제약이 심했다.

중기부속품이나 자재를 구입하려 해도 북쪽으로는 휴전선이 가로놓여 있어 어쩔 수 없이 서울이나 강릉으로 나가야만 되었고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다.

또한 어항공사의 가장 핵심자재인 공사용 석재를 구입하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기억이 생생하다.

■ 住民願에 意慾減退

보통 어항공사는 석산을 개발하여 석재를 공급받는데, 산이 많은 강원도에서 석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러했다.

공사 첫해인 1987년의 일이다.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 인근 산을 뒤져 겨우 찾아내면 군사보호지역이라 해서 군당국과 협의와 절

충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됐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당시 한창 불어닥친 '금강산 개발 투기 바람'으로 지가가 크게 상승해 과도한 원석대금을 사유림의 산주가 요구해와 포기해야만 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천신만고 끝에 석산 개발을 시작했을 때 이번엔 이 지역 농민들과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사석 적재차량이 통과하면 새마을공사로 포장된 농로가 파손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대진항이 잘 개발되면 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면 되었지 손해볼 것이 없을 텐데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어항건설을 할 때 이러한 공사 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을 절실히 느꼈다.

그동안 수많은 어항을 건설해 오면서 그래도 얼마만큼은 사명감을 갖고 즐거운 기분으로 어항 건설에 보람을 느껴왔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민원이 자주 제기됨으로써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감퇴되는 것을 솔직히 느낄 수 있었다.

■ 暴風으로 施工時 피해

1989년에는 공사가 다른 해에 비해 상당히 늦은 그해 5월 23일에야 발주되는 바람에 가장 큰 고통을 겪은 해였다.

일반적으로 어항공사는 일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풍이나 장마 내습기를 피해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정석처럼 되어 있다. 그러한 것이 조금만 차질이 생기면 계속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1989년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착공한지 한달이 채 못되어 장마가 닥쳐왔고, 이 장마는 한 달가량이나 길게 끌었다.

이제나, 저제나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태백산맥의 지형적인 영향을 받은 계절풍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폭풍이 수시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빈번한 폭풍으로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데다, 3회에 걸쳐 시공한 구간까지 피해를 입게 되니 한마디로 일할 의욕이 뚝 떨어졌다.

그 빈도가 너무 심한데다 피해액도 만만치 않아 한때 전직원이 모여 비상한 회의까지 소집한 적이 있다. 내용은 공사를 여기서 중단하고 철수하자는 것이었다.

다행히 많은 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개척정신으로 이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일치단결, 노력한



**어민들의
이야기가 타당한 면도
없지 않으나
공사시행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난감할 때가
더러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진항 개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시로 확장되고
개·보수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끝에 1989년도분 공사는 더이상 탈없이 마무리했지만 정말로 어려운 지역의 어려운 공사임에는 틀림없다.

올해 각종 방파제 외곽시설이 끝나면 대진항은 정온수면적 6만 8,900㎡와 항내수면적 8만6,800㎡가 확보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로한계선 부근에까지 가서 조업을 하는 외래어선까지도 폭풍이나 황천시 긴급대피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한 연안어업 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각종 경비절감으로 어민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가 완공돼가는 최근 어민들간에 빚어지고 있는 잦은 분쟁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외곽시설이 점차 갖추어지자 이번엔 접안시설이 부족하여 말썽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어선 세력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접안시설이 이에 못따라 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어떤 어민은 핫김에 현장사무소까지 찾아와 외곽시설은 그런대로 돼 있으나 어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기왕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이런데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며 항의겸 호소를 하다가 돌아가기도 한다.

■ 漁民呼訴 타당하지만

어민들의 이야기가 타당한 면도 없지 않으나 공사시행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난감할 때가 더러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진항 개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시로 확장되고 개·보수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그때엔 지금 우리가 겪었던 많은 고생과 경험이 충분히 제값을 할 것임은 물론 어민 모두가 바라는 '이상어항 건설'의 길을 앞당겨 주는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자부한다. 왜냐하면 대진항은 동해안 최북단의 어업전진 기지이기 때문이다. ㉔